

한일경제관계의 현상과 전망

-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경제관계도 2012년 이후 對日 수출과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음
- 이 같은 한일경제관계 상황은 아직까지 원고·엔저와 같은 순수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며, 양국 정부간 관계의 악화 등 한일관계 전반적인 긴장관계로 인하여 초래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
- 그러나 앞으로 한일 정부간 관계 악화가 일본기업의 對韓 비즈니스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예견

1. 엔·원 환율의 상승

□ 2012년말부터 엔저·원고 진행

- 원·엔 환율은 2012년 100엔당 1,400원에서 2012년 12월에 1,200원대, 2013년 1월에는 1,100원대, 5월에는 1,000원대로 상승

□ 對엔화 환율 상승폭이 對미달러 환율 상승폭을 크게 상회

- 2012년 이후 2013년 8월까지 원화의 對엔화 환율 상승폭은 19.2%로 對미달러 환율 상승폭 0.9%를 크게 상회

2. 對日수출 감소

□ 2012년에는 소폭 감소

- 이 같은 급속한 엔저·원고 진전은 한국의 총수출보다는 對日수출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
- 2011년도 對日수출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0.8% 증가
 - 스마트폰, 석유제품, 일용품, 자동차부품의 對日수출이 크게 증가
- 그러나 2012년에는 전년의 급증에 대한 반동과 연말 이후의 원고·엔저로 2.2% 감소(한국의 총수출은 1.8% 감소)

□ 2013년 들어 對日수출이 급감

- 2013년 1~8월 기간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2.2% 감소
 - 동 기간 중 한국의 총수출은 1.7% 증가했는데, 이는 원·엔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총수출보다는 對日수출에 크게 나타났음을 반영

□ 일본시장점유율도 저하

- 한국 상품의 일본시장점유율도 2009년과 2010년에 4%에서 2011년에 4.7%로 크게 상승한 이후, 2012년에는 4.6%, 2013년 들어 1~8월 기간 중에는 4.3%까지 저하

□ 철강, 전자전기제품 등 對日수출 주종 품목이 크게 감소

- 2013년 1~8월 기간 중 對日수출 주종 품목인 철강제품이 최대 26%의 감소폭을 보였으며, 전기전자제품도 16% 감소
 - 2010년 이후 2자리대 증가를 보인 자동차부품은 그나마 한국기업을 포함한 닛산·르노그룹의 부품조달 네트워크 구축으로 3.2% 감소에 그침

〈對日수출 및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추이〉

(단위: 백만달러)

2010		2011		2012		2013(1~8)	
對日수출	일본의 대한직접 투자	對日수출	일본의 대한직접 투자	對日수출	일본의 대한직접 투자	對日수출	일본의 대한 직접투자
28,176 (29.4%)	2,083 (7.7%)	39,680 (40.8%)	2,289 (9.9%)	38,760 (▲2.3%)	4,542 (98.4%)	22,704 (▲12.2%)	1,355 (▲48.6%)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외국인투자 통계
관세청, 무역통계

- 주 1) ()는 전년대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2) 일본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

□ 다시 확대되는 對日무역적자

-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축소되고 있던 對日무역적자가 다시 확대
 - 對日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에서 2011년에 286억 달러로 크게 축소된데 이어 2012년에도 256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나, 2013년 들어서는 8월 현재 178억 달러로 전년동기 172억 달러를 상회

3.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감소

□ 2012년에는 급증

- 2012년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한국의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 19.1%를 크게 상회하는 98% 증가
- 일본의 對韓투자 증가는 한국의 對日 투자유치 노력과 맞물려, ①거래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개발 용이, ②외환리스크 회피, ③생산비용절감(낮은 실효세율, 전력요금 등), ④FTA를 활용한 수출거점 등이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 큰 메리트로 작용

□ 2013년 들어 급감

- 그러나 2013년 상반기에 46% 감소
- 그 배경으로 전년의 급증에 대한 반전과 초엔고의 시정, 일본의 TPP참가, 한국의 전력요금 인상 등으로 투자메리트가 감소

4. 전망

- 한일경제관계는 환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
- 환율요인은 아베노믹스가 엔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온 데 이어, 앞으로 소비세 증세로 인한 경기하강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수출확대에 의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의 강조되고 있음
- 이는 일본정부가 엔저 방어를 위한 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하는 바, 적어도 엔고에 의한 원고의 시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그리고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코스트요인 면에서도, 對韓 직접투자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투자환경개선에도 한계가 있음
 - 일본의 TPP참가, 일본 국내 투자환경 개선 등은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이제까지의 한일관계는 정치적인 문제가 불거져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더라도 경제 문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음
- 대기업 중심으로 정치에 일정한 거리를 둔 동시에 한일경제인회의 등을 통한 교

류가 심화되어 왔기 때문임

- 그러나 최근 한일관계는 독도 영유권 등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즈니스 문제로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여 일본기업들이 우려를 표명
- 과거 일제 식민지기간 중 징용된 한국의 노동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, 만일 대법원에서 배상명령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, 일본기업의 對한국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 우려
-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양국간 현안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정상회담 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임

<참고자료>

『ASIA MONTHLY : 기로에 선 한일관계』 일본종합연구소, 2012.10.1

* 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asia/pdf/7044.pdf>